

금융권 유리천장 깨진다... '여성리더 양성' 앞장

KB국민은행

3년내 부점장급 임원 20%로 확대
“일·생활 균형으로 ‘양성평등’ 실천”

신한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여성리더 멘토링 운영
올 ‘쉬어로즈 2기’ 49명 확대 선발

금융권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인사에서 여성들이 임원으로 이름을 대거 올리는데 이어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 리더급 층을 두텁게 하는데 금융권이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부점장급 이상 여성리더 비중을 현재 약 10%의 2배 수준인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여성가족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 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7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식에서 (왼쪽)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오른쪽) 전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10개 경제단체가 체결한 ‘성별 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의 후속과제로 추진됐다. KB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반영돼 은행권 최초 자율협약 기

업으로 선정됐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은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육성된 여성인재가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여성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 지원

을 통해 양성평등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여성직원 직무 다양화와 우수 여성인재 육성 관련 제도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로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했으며, 시중은행들은 여성 경영진 전진배치에 나섰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1976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여성 본부장이 임명됐고, 은행연합회 역시 지난해 말 승진인사에서 여성 임원을 배출했다.

금융권이 여성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 것은 일시적인 여성 임원 발탁을 넘어 지속가능한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신

한 쉬어로즈는 여성을 뜻하는 ‘쉬(Sh e)’와 영웅을 뜻하는 ‘히어로(Hero)’의 합성어로 여성인재를 그룹 내 여성 인력의 롤모델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난해 신한 쉬어로즈 1기는 29명이었으며, 올해 임원으로 승진한 신한은행 왕미화 부부장, 조경선 부부장 등이 모두 1기 출신이다. 신한금융은 올해도 쉬어로즈 2기로 49명을 선발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올해 대상 직급과 규모를 확대해 최종 49명의 그룹 내 여성리더들이 선발됐으며, 1기에서 배출한 여성리더와의 코칭과 멘토링 등 선순환 효과도 더해질 것”이라며 “신한 쉬어로즈는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여성리더를 육성하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그룹 내 여성리더의 풀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총리 질의 응답’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 제한적”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주요 IB “노딜 브렉시트 확률 높다”
영국의회 “반대 입장” 절대적 우세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추진 방향이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탈퇴)와 재국민투표 추진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지난달 24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퇴 발표와 같은 달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브렉시트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메이 총리는 6월 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추진하면서 재국민투표 수용 의사를 밝혀 왔으나 재국민투표에 대한 보수당 내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난 7일(현지시간) 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집권당인 보수당은 노딜 브렉시트를, 제1야당인 노동당은 재국민투표 및 EU(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IB(투자은행)들은 메이 총리 사퇴 발표 이후 노딜 브렉시트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의회 내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반대 입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3월 27일 영국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의 향투표는 찬성 160표, 반대 400표로 부결됐다.

한은은 촉박한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탈퇴시한 재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조기총선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24일 브랜든 루이스 보수당 의원은 오는 7월 20일 이전까지 차기 당대표 선출절차를 완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회 휴회기간(7월 하순~9월 초)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브렉시트 재추진 은 9월 초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은 신임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추진 계획을 표명하는 한편 조기총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교착상황 타개, EU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보수당의 후임 총리가 조기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일각에서는 영국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탈퇴시한 재연장 요청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재연장을 요청하더라도 EU측이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2.6%p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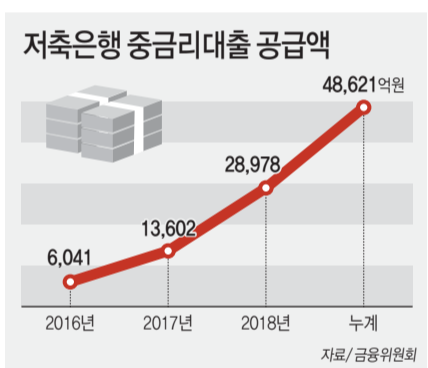
자산규모 순 10개사 연평균 18.85%
자산건전성 개선 등 이미지제고 실현

저축은행 업계가 지속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와 자산 건전성 개선을 통해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자산규모 순위 상위 10개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18.85%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낮아졌다. 저축은행들이 지속적인 금리 인하 노력을 통해 신용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15년 JT진애저축은행이 ‘윈더풀 와우론’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이후 SBI저축은행의 ‘사이드’ 등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입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4조1594억원이며, 이 중 43.2%에 해당하는 1조7974억원을 저축은행이 공급했다.

또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14년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불안정하다’는 일각의 인식을 탈피하고 있다.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로 알려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기준 업계 평균 14.36%를 기록해 금융 당국의 규제 기준을 훨씬 웃돌았으며, 또 다른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여신비율은 5.0%를 기록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함으로써 손쉬운 계좌 개설과 가입을 가능하게 한 점도 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도왔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개발해 운영 중인

‘SB톡톡’은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앱이다. 다수 저축은행은 비대면 채널인 SB톡톡의 장점을 살려 지점 가입 시보다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예·적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대형 저축은행들이 운영중인 자체 앱도 있다. JT진애저축은행의 모바일 앱 ‘윈더풀론’은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계좌목록과 거래내역조회 등 개인별 이용내역을 제공하며, 대출한도조회부터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업권 최초로 풀 बैं킹 서비스가 가능한 ‘웰컴 디지털뱅크’를 선보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도 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무엇보다 과거보다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이 다양해진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하나금융 ‘혁신금융협의회’ 출범

기업여신시스템개선협의회 등 운영
혁신금융 지원확대...3년간 20조원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혁신금융협의회’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협의회는 김정태 회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사 사장 및 그룹의 주요 임원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그룹의 혁신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혁신금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혁신금융협의회 산하에 ‘기업여신시스템개선협의회’와 ‘창업벤처투자협의회’ 2개의 분과협의회를 운영한다.

기업여신시스템개선협의회는 일괄 담보제도 정착,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일원화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및 관련 대출 지원 확대를 담당하며, 창업벤처투자협의회는 직간접투자 및 펀드 조성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담당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혁신금융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금번 혁신금융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혁신금융 지원규모를 3년간 15조원 지원에서 향후 3년간 20조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혁신금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술금융을 순증규모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취급규모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30조원에 달

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내 금융그룹 최초의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사인 하나벤처스는 제1호 펀드인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를 6월중 결성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하나금융그룹이 550억원을 출자한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설립 후 첫번째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은 업계 최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KEB하나은행을 통해 국내 첫 민간 주도형 유니콘 모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혁신금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